

**순수미술의 영향을 통한 현대 미국 건축의 정체성 연구

- 로스앤젤레스 아방가르드, 포스트 모더니즘, 팝 건축을 중심으로 -

In Search of the Identity of Modern American Architecture through the Influence of Modern American Fine Arts

- Focused on LA Avant-Garde, Post Modernism, Pop Architecture -

이영화* / Lee, Young-Wha

Abstract

As the world becomes more globalized thanks to the fast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 national identity become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Based on this, the study searches for the identity of modern American architecture through exploring the influence of modern American fine arts on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s and the attributes of modern American fine arts obviously transferred into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The main concept was elimination of any kind of illusion for maximization of reality, and it was rooted into American culture, the way of life and thinking. With the concept, the attributes were divided into two extreme poles: *materiality* and *morphology*; the former was evolved from Abstract Expressionism and Post-Minimalism and transferred into Los Angeles Avant-Garde architecture; the latter was from Pop Art and transferred into Postmodern architecture and Pop Architecture.

키워드 : 현대 미국 순수미술과 건축, 건축의 자율성과 대중성, 정체성과 속성, 현실성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지년 세기 말부터 시작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은 금세기에 들어와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로 인한 정보화 시대의 여러 가지 산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그러한 거리를 극복하고 나아가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하나의 지구촌을 형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 가속화될 수록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회복의 노력이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다. 디자인에 있어서도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더욱 강력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및 관점에서 출발하여, 건축 디자인 역시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을 사례로 하여 미국 건축에 나타난 미국적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건축을 통하여 한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개념'과 '속성'들을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순수 미술'이라는 제3의 분야의 영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다. 즉, 순수 미술에서의 미국적 속성이 어떻게 건축으로 전이되었는가에 대한 일종의 영향관계를 추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인에 나타난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파악의 시도가 다각도로 모색되는 시기에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연구 방법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그 파악의 방법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하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건축의 정체성 파악을 위하여 우선 '정체성'에 대한 상대적이고 하위적인 개념인 '속성'에 대한 파악에서 출발하기로 하였다. 즉, 진정한 미국적

* 정회원, 서울여자대학교 디자인학부 조교수

** 본 연구는 서울여자대학교 2003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임

건축을 가려내기 위하여 우선 미국적 속성을 파악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의 '미국적 속성'의 탐색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적 방법을 적용하여 주변 컨텍스트의 파악과 이를 통한 속성을 파악하기로 하고, 건축 외의 분야 중 가장 건축과 많은 영향관계에 있는 분야를 모색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순수 미술 분야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건축이나 순수 미술 모두 시대적 배경의 산물로서¹⁾ 오래 전부터 그 개념과 속성에 있어 건축과 상호영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순수 미술 분야를 고찰하고 그 개념 및 속성의 키워드를 추출한 다음 그러한 속성들이 건축에 어떻게 전이되고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미국의 순수 미술 분야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즉, 미국 순수 미술사를 고찰했을 때 처음으로 '미국적 속성'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정되는 '추상표현주의'가 등장한 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를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²⁾ 이러한 시간적 범위 내에 나타난 수많은 사조들 중에서도 '미국적 속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즉 미술사학계에서 '미국적 예술'로 인정되고 있어 미국 특유의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조들만을 택하여 연구의 구체적 대상으로 삼았다.

2. 시대적 배경

1945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강력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지역적 정체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전까지 미국은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동안 미국이 그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데에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선 1945년 2차대전의 종전으로 인한 미국의 급부상과 2차적으로는 1960년대의 정치, 사회적 혼란과 반문화운동이다.

세계 제 2차대전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나 전쟁 중군의 파병으로 인하여 미국인들은 심리적인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차대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획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쟁 중 군수물자의 생산과 공급

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전쟁 후 유럽의 국가들이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을 때 미국은 일찍이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2차대전의 종전은 미국에 막대한 정치적 힘을 실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차대전은 문화 예술의 중심지를 유럽에서 미국으로 옮겨 놓은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은 그간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해 왔던 유럽이 전쟁 복구에 여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패러다임으로는 정치적 힘의 이동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모든 분야의 힘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쟁 중의 많은 유럽의 예술가들이 미국으로 피난을 오면서 예술 활동지의 물리적인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새로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등장한 미국은 단순히 유럽의 전위예술의 새로운 장소만을 물리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미국적 예술을 형성할 수 있는 장소적 '컨텍스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점이 바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미국적 속성의 배경 중 하나인 황량하고 거칠며 현실지향의 요소를 제공한 뉴욕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³⁾

2차대전의 종전을 계기로 획득한 미국의 예술적 정체성은 1960년대에 오면서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1960년대 일어났던 반문화 운동으로 인한 기존의 모든 것에 대한 거부와 그로 인하여 더욱 부각되는 현실, 즉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추한 것들까지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과 일상성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의 혼란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미국의 일련의 사건과 이로 인한 혼란은 미국적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실패, 정치적 거물들의 암살로 인한 파문, 도시들 내의 빈민 지구 폭동, 대학 교내의 무질서 등이 미국의 196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다.⁵⁾ 또한 1968년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성적 급기 등 모든 급기가 최초로 도전 받고 깨뜨려진 시기'였으며 '젊은 세대 전체가 반란에 휩싸인 시기'였던 것이다.⁶⁾ 이처럼 1960년대라는 시대 상황은 혼란과 일탈

3) 이러한 현실적이며 거칠고 황량한 요소에 대하여 미술사학자 오광수는 "유럽의 잘 다듬어진 전통사회의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련되지 못하고 치기만만하면서 동시에 순수한 열기로 차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의 저서에서 윌리엄 사이츠의 "뉴욕이라는 토지 특유의 힘, 정적 및 고급한 취미에 비해 거칠고 독기어린 모델은..."이라는 표현을 빌어 뉴욕이 미국 미술의 정체성 형성에 수행했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서울, 1988, p.171

4) 1960년대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도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격동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 혼란, 예를 들어 1968년의 파리학생운동이 예술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력은 미미한 데에 반하여 미국, 특히 서부의 혼란은 1960년대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5) 태혜숙, 미국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증명, 서울, 1997, p.108

1)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시대의 여러가지 컨텍스트를 건축이나 순수예술로 번역하여 담아낸다는 수동적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시대를 외면하고 자율성을 지향하는 경우도 역시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 '추상표현주의'에 대해 미술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적 속성의 예술' '미국형 회화' 등으로 일컫고 있다.

그 자체가 이슈가 되던 시기였으며, 기성세대 및 권위에 대한 부정과 도전은 기존 규범의 답습을 오히려 어색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반문화적 분위기는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이 시기 예술의 사회문화적 컨텍스트로 작용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3. 현대 미국 순수 미술에 관한 고찰을 통한 개념 추출

3.1. 추상표현주의

추상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는 2차 대전 이후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중심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면서 몇몇 작가들이 뉴욕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한 운동이자 사조로서, 조형예술의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되고 주도되었던 사조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추상표현주의의 사상과 특질은 미국적 속성의 첫 발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미술사학자들은 이를 '미국적 속성의 미술'로 규정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미술사학자 린튼(Nobert Lynton)은 그의 저서 <The Story of Modern Art>에서 추상표현주의를 '미국적 속성의 미술'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미국적'이라는 형용사는 외래적인 근원에 대한 문화적으로 혼합된 연학국가 속에서의 고립감까지 포함한다고 하여, 추상표현주의가 미국 특유의 상황의 반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 루버크(Karl Ruhrberg)역시 거의 저서 <Art of the 20th Century>에서 추상표현주의 작가인 폴록(Jackson Pollock)의 행위에 대해 '미국과 그 시대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⁸⁾ 나아가 추상표현주의는 미국문화를 정의함에 있어 헐리우드 영화와 재즈로 대표되는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순수미술을 앞세운 고급문화로서의 미국문화 정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⁹⁾ 따라서 본 연구의 주안점인 미국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추상표현주의의 개념과 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중 본 연구와 직결되는, 즉 건축적으로 전이될만한 속성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추상표현주의는 회화의 정의를 작위적인 계획에 의한 완성에서 벗어나 작가의 '행위의 궤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 작가인 폴록의 뿌리기 그림들은 계획된 완성품이 아니라 그가 화면 위에서 물감을 뿌리면서 행

하였던 행위들에 대한 기록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폴록의 행위는 추상표현주의를 액션 페인팅(Action Painting)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추상표현주의가 그 결과물보다 문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 즉 프로세스에 의미를 부여하는 운동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하여 물감이 화면에서 즉각적으로 만들어내는 전혀 계획되지 않은 우연적 효과를 통한 그것을 행하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그림 1> Jackson Pollock, Black and White, Number Five, 1952

둘째, '추상표현주의'를 그 명칭이 전달하고 있듯이, 대상과 작가에 대한 입장을 '추상'과 '표현'이라 정리하고 있다. 우선,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추상성을 지향하며, 이를 통하여 어떠한 상징성도 배제된 '내면 표현'을 할 뿐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후의 미국이 감성으로의 회귀현상을 보이면서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내면표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새로운 뿌리기 기법은 물감과 캔버스에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형성하는데, 이는 작위적이지 않은 우연적 효과를 창출하게 되며, 그 결과 그동안 전형적인 붓자국에 익숙해져 있던 관객들에게는 강력한 물성(物性)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물감이 창출할 수 있는 매우 거친 텍스처는 뉴욕의 자유분방하면서도 황량한 분위기에 대한 반영이라 할 수 있다.

3.2. 후기미니멀리즘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조형예술은 장르가 혼재된 탈장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회화와 조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후기미니멀리즘(Post-Minimalism) 미술은 한마디로 추상표현주의가 추구했던 여러가지 특징들이 입체화되고 극대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직전 나타났던 미니멀리즘의 정형적 그리드와 비물질적 경향에서 탈피하여 물성과 프로세스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추상표현주의와 개념 및 속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후기미니멀리즘 역시 미국적 속성의 예술로 정의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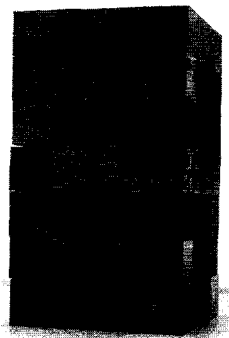
특히 1969년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에서 열린 <Anti - Illusion: Process, Material>전이나, 같은 해 유럽 4개국에서 열린 <When Attitudes Becomes Form: Works - Concepts - Processes - Situations - Information - Live in Your Head> (이하 <W전>으로 표기)라는 제목의 전시는 당대의 아방가르드 미술, 즉 후기미니멀리즘 미술의 집결장으로서 미국작가들과 당대의 미국미술의 경향을 유럽에 대거 소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¹⁰⁾ 따라서 이 두 전시회로 대표되는 후기미니멀

6)Ali, Tariq 외 1인 저, 안찬수 외 1인 역, 1968: 희망의 시절1, 분노의 나날,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1, p.22, p.35
7)Linton, Robert, The Story of Modern Art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서울, 1993, p.229
8)Rufberg, Karl et al., Art of the 20th Century, Taschen, Cologne, 2000, p.274
9)진휘연, 추상표현주의와 후기식민주의 이론의 비판적 고찰: 모더니즘 후기식민주의적 실천, 미술사학 vol.1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p.156

리즘의 개념과 속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추출하고자 하는 미국적 속성과 직결되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Anti Illusion: Process, Material (비환영: 과정, 물질)>전의 제목이 암시해주듯, '과정과 물성 간의 상응을 통한 환영의 제거'라 정리할 수 있으며, 이를 물성과 과정의 두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물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후기미니멀리즘은, 예술작품의 전통적인 '환영' 창출과의 관계를 끊고자, 작품의 형상자체를 해체하는 대신 사물과 대상이 갖는 원초적인 재료의 물성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강철, 플라스틱, 파이버글라스 등의 산업사회의 신재료를 포함한 다양한 재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하는데, 단일 재료를 이용하여 물질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가 하면, 두가지 이상의 상이한 재료들을 병치시킴으로써 우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로써 재료의 물성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물성의 추구는 근본적으로 현대미술에서의 진정한 리얼리티를 찾는 작업에서 시작되었는데, 그림을 그린다거나 3차원의 작업을 행함에 있어 그 작위성과 각색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작품과 현실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화장(火葬)용 장작 여러개를 한 장씩 쌓아 놓은 것만으로도 하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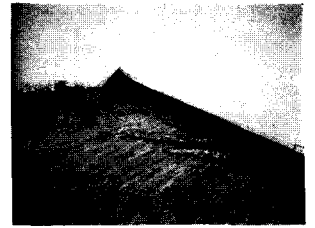
예술세계가 완성될 수 있음을 주장한 안드레(Carl Andre)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쏟는 것은 작품은 물적 현재에 머물고 있으며 그 순간에 경험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다른 <W전> 참가자들도 설명 심포지엄에서 그들의 전시의 키워드를 'anti-form'이라고 하여, 자신들의 관심이 형상(morphology)이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무정형한 물질을 통한 비형상(amorphology)임을 강조하였다.¹¹⁾ <그림 2>



<그림 2> Carl Andre <Timber Piece> 1970

둘째, '과정'의 측면을 볼 때, 후기미니멀리즘의 작가들은 작업을 행함에 있어 고정된 모습, 즉 완성보다는 프로세스의 강조하고 있다. 즉, 재료가 주는 불완전하고 고정되지 않은 모습을 '시간'이라는 새로운 요소의 삽입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는데, 완성품으로서의 이미지를 거부하고 제작과정을 작업에 그대로 투영하여 부정확하고 변환 중인 모습을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¹²⁾ 이러한 점에서 후기미니멀리즘은 추상표현주의와 그 개념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69년 세라(Richard Serra)의 작품 <Splash>는 재료 자체의 물성을 강

조할 뿐만 아니라, 그 장소의 특유성(site-specificity)을 드러내 줌으로써 작업이 진행된 장소, 그 작품이 놓여지는 장소, 그리고 물성이 모두 조화된 완벽한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있다.¹³⁾ <그림 3>



<그림 3> Richard Serra, Splash, 1969

3.3. 팝아트

팝아트(Pop Art)는 잘 알려진 대로 196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예술사조로서, 대중문화를 2차원, 3차원적으로 예술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조이다. 레디메이드 차용이라는 점에서 팝아트의 역사적 근원으로 여겨지는 다다이즘이 현실을 부정하는 일종의 반예술(anti-art)의 성격을 지녔다면 팝아트는 오히려 자본주의 제도의 소비적 상업적 모티브들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점이 팝아트를 유럽의 반예술들과 구분하는 근거가 된다.¹⁴⁾

미국의 대표적 예술로 알려진 팝아트의 출발에 대해서도 그것이 영국의 팝아트, 특히 해밀턴(Richard Hamilton)의 작품에 근거를 둔다는 주장과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나 존스(Jasper Johns) 등 순수 미국작가들의 작품에 근거한다는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 <그림 4> 따라서, 미국 미술의 속성에 대한 파악을 추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팝아트 자체의 개념과 속성 뿐만 아니라 영국 근원 팝아트와 차별화되는 미국의 팝아트의 개념과 속성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그림 4> Richard Hamilton, Just what is it that makes today's home so different, so appealing?, 1956

첫째, 그 형식에 있어서 팝아트는 직전 시대 추상표현주의의 극단적 추상성에 반발하여 극단적 구상성을 내세운다. 추상표현주의가 작가의 주관적 표현을 중시하여 뿌리거나 흘리기 등의 비형상을 추구한 데에 반하여 팝아트는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들을 소재로 삼는다.

둘째, 팝아트의 소재는 알려진 대로 대량소비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상품들로 이루어져 그간 추상미술에서 강조되어 왔던 예술의 독자성을 거부하고 일상성을 강조하였

10)진취원, When Attitude Becomes Form, 1969년 아방가르드 미술의 집결장,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19, 서양미술사학회, 2003,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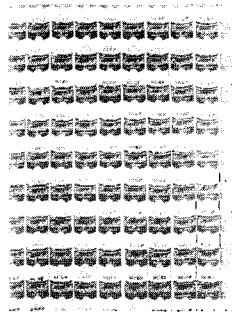
11)Ibid., p.116

12)Ibid., p.118

13)이 작품은 벽과 바닥 사이의 틈새에 반죽된 흙을 뿌려 넣고 그것이 굳은 다음 빼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행하였으며, 작품은 그 작업이 진행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 놓여짐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괴리가 사라진 리얼리티를 추구하고 있다.

14)Collins, Bradford R., The Metaphysical Nose Job: the Remaking Warhola 1960-1968, Art Magazine 62, Feb. 1988, p.49

다. 워홀(Andy Warhol)의 <캠벨 숲 통조림>이나 <코카콜라 병> 등은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5>



<그림 5> Andy Warhol, Campbell Soup Cans, 1962

셋째, 팝아트는 그 기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재현된 이미지를 다시 재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워홀의 마릴린 먼로의 사진이나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만화 등은 2차원의 이미지, 즉 이미 한번 재현된 이미지를 그대로 차

용하여 2차원으로 옮긴 것들이다. <그림 6> 이 점이 특히 미국의 팝아트를 영국의 팝아트와 구별하는 중요한 차이인데, 해밀턴이 선택한 광고들을 변형, 단순화시키면서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게 바꾸어 나가던 것에 비해, 워홀은 광고나 스타의 얼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¹⁵⁾ 이 '재현의 재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그 하나는 그동안의 미술이 차원을 옮기는데, 즉 3차원의 작품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기는 데에서 일어나는 환영(illusion)을 제거하여 극단적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함이며 또 다른 의미는 대중이 익숙하고 친근한



<그림 6> Roy Lichtenstein <M. Maybe> 1965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넷째, 해밀턴이 소속되어 있던 영국의 독립그룹(Independent Group)이 일상생활과 예술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어 예술의 일상성을 강조하는 데에 머물렀다면, 미국의 팝아트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나아가 일상성을 넘어서 상업성의 차원에까지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워홀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기존의 예술가와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는데, 즉 자신을 할리우드 배우와 동일시하기도 하는가 하면, 자신의 작품을 대량생산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만 급기시 되어 왔던 예술의 상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나아가 그만 예술이 추구해왔던 독자성에 대한 근본적 거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팝아트가 그러한 대중적이고 구상적 매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전달방식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미술사학자들은 이를 오히려 추상표현주의에서 아어지는 극단적인 아방가르드로 분류하고 있다.

15) 진취연, 미술과 일상성의 전이와 병합: 팝아트와 후기모더니즘의 시작 미국사연구 11집, 미국사학회, 2000, p.129

3.4. 소결

본 장에서는 최초의 미국 특유의 미술로 인정 받고 있는 추상표현주의를 비롯하여, 2차 대전 이후의 미술 중 특히 미국적 속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즉 유럽의 미술과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사조와 운동을 고찰하여 그 개념과 속성을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형상 대신 재료의 물성과 작업의 프로세스를 중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작가의 주관적 표현을 추구하는 계열과, 일상적 형태를 도입하여 미술의 독자성을 거부하고 대중성을 중시하며 작가 주관이 아닌 객관적 상징과 은유를 추구하는 계열로 이원화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계열 모두 궁극적으로는 환영(illusion)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특유의 현실성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의 목표 하에 이 두 가지 계열은 그 매개체에 있어, 전자는 가공하지 않은 원재료의 물성을 사용한 반면, 후자는 오히려 산업사회의 최후의 가공품을 사용했다는 극단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할 것이다.

4. 건축으로의 전이 양상 분석

본 장에서는 앞 장에서 추출한 순수미술에 있어서의 미국적 개념과 속성이 건축으로 전이되고 변화되어 발현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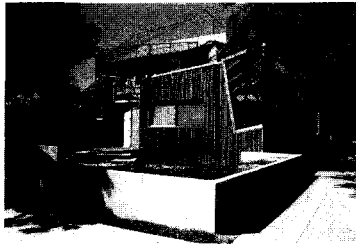
4.1. 표현, 물성, 프로세스의 전이와 발현

추상표현주의와 후기미니멀리즘의 대표적 속성인 물성과 프로세스의 강조를 통한 주관적 표현의 추구는 미국건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특히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미국 서부 지역, 즉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다. 즉,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게리(Frank O. Gehry)의 초, 중기 작품들과 1990년대 모포시스(Morphosis)의 작품들에 잘 나타나 있다.

추상표현주의가 미국적 속성의 예술이라면 게리의 건축은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건축행위를 부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그의 정신과 그의 작품의 특징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최근의 작품의 양식적 특징만을 살펴본다면,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도입으로 독창적인 형태를 도출해내기도 하고 특히 그것을 건축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초기, 즉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작품에서는 추상표현주의나 후기미니멀리즘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작업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태생으로 미국 서부에 정착한 게리의 눈에 1960년대의 미국은 강력한 문화적 정체성의 주체로 다가왔고, 그의 작업은 이

충격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특히, 미국 서부의 순수미술 작가들과의 실질적 교류를 유지했던 게리의 작품에서 추상표현주의나 후기미니멀리즘의 속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¹⁶⁾

그의 1977년 작품인 자신의 신타모니카 저택에서 게리는 주름진 금속판과 체인망 등 주거 공간의 재료의 상식들을 깨고 있으며, 실내로부터 돌출된 듯한 나



<그림 7> Frank O. Gehry, Gehry Residence, Sata Monica, 1977

무의 사용까지 합쳐져 이 세 가지 상이한 재료는 서로의 물성을 더욱 충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¹⁷⁾ <그림 7> 게리는 자신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변을 펼쳤다.

“나는 디테일 작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원재료성을 유지하려 한다. 나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⁸⁾

여기서 ‘원재료성’(rawness)과 ‘있는 그대로(nonprecious)’¹⁹⁾라는 단어의 언급은 바로 재료의 물성과 작업 프로세스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계획된 완성보다는 끊임 없는 행위의 지속에서만 창작의 순수성이 있다”는 폴록의 사상과 맥락을 정확히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작업 방식 자체에 있어서도 초기의 게리는, 건축 작업에 있어 기존의 건축가들이 행하였던 방식인 그리드 체계 상의 스케치로부터 출발하는 대신, 여러가지 상이한 재료들을 실제로 조합시켜 가면서 결과물을 획득하곤 하여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우연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게리가 후기로 갈수록 그 작업에 있어 형태적 진화를 거듭

하며 그러한 물성, 프로세스, 표현 위주의 작업에서 점차 벗어났다. 같은 미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990년대에 일어난 로스앤젤레스 아방가르드 건축가들이 이를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는 앞서 언급한대로 196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통하여 미국적 정체성을 확연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여러 종족과 국적과 문화가 뒤섞여 있어 기존 권위예의 도전, 규범에서의 이탈, 다원주의 등으로 미국문화의 정체성을 정의시켜주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그러한 혼돈이야말로 이 지역이 추구하는,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현실성’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여러가지 추한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과거가 아닌 ‘현재’를 받고 받아들이는 미국적 정체성을 예술과 건축으로 승화시킨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배경을 지닌 로스앤젤레스 아방가르드 건축가의 대표적 인물로, 모포시스(Morphosis) 그룹의 메인(Thom Mayne)이나 모스(Eric Owen Moss)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모스의 작품은 그 거친 물성의 대비와 노출을 건물 외부 뿐만 아니라 실내에까지 적용시킴으로써 미완성의미를 드러내고 있어 양식적으로 게리의 초기작품에 맥락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8> 더욱이, 실내공간에 있어 마감되지 않은 다양한 재료의 노출은, 그것이 건물 외부에서 이루어질 때보다 이용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8> Eric Owen Moss, Lawson - Western House, Brentwood, 1993

모포시스의 경우도 역시 재료의 노출과 프로세스의 노출을 통한 물성의 극대화를 통하여 추상표현주의나 후기미니멀리즘의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특히 극도로 가공된 재료와 극도로 거친 재료를 병치시키는 특이한 방법으로 물성을 돋보이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림 9> 또한, 메인인은 모포시스를 통한 자신의 작업방식이 늘 직관적이었음을 강조하였는데, 실제로 그는 그 작업방식에 있어서, 잘못 그린 선으로 즉석에서 주택도면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고 그의 동료가 상기하고 있다.²⁰⁾ 후기로 갈수록 모포시스의 작품에서는, 앞서 언급한 모스가 추구했던 거친 재료를 통한 극단적 물성의



<그림 9> Morphosis, Blades Residence, Santa Barbara, 1995

20)Mophosis, c3a New World Architecture 시리즈 no.3, 건축과 환경, 서울, 2001, p.8

16)게리의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학부 전공은 건축이 아닌 순수미술이었는데, 여기서 게리는 당대 순수미술의 개념을 체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작가들과 실질적 친분을 갖게 된다. 특히 당대의 조각, 즉 후기미니멀리즘의 개념 및 특징은 게리의 초기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예를 들어 1964년의 덴지거 주거(Danziger Studio and Residence in Hollywood)나 1968년 오닐 창고(O'Neil Hay Barn in San Juan Capistrano, California)에서 게리는 단순한 형태와 재료의 물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당대 조각가인 저드(Donald Judd)의 형태적 단순성 및 안드레(Carl Andre)의 물성 극대화 등의 특징을 건축적 언어로 번역하여 반영하고 있다. (Stungo, Naomi, Frank Gehry, Carton Books, pp.12-13참조)

17)게리의 초기 작업, 즉 상이한 재료를 병치하여 충격을 주고 물성을 드러내는 작업은 그 외양만으로는 유럽의 다다이즘의 슈미터의 구성작품이나 러시아 구성주의 로드첸코의 꼬라쥬와의 연관성을 논할 수도 있겠다, 게리의 작업은 작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의 작품과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8)Ragheb, J. Fiona, (etd) Frank Gehry, Architect, Guggenheim Museum, New York, 2001, p.290 (원문: "I keep a certain rawness through the detailing. I work hard at making it nonprecious.")

19)'nonprecious'는 '값 싼'으로 직역 될 수 있으며, '평범한' '있는 그대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10> Morphis, Politix Retail Store, 1989

노출은 약화되었으나 대신 형태적 접근을 통한 미완성의 미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프로세스의 노출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Politix Retail Store>에서는 물성의 노출 대신 건물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방식을 통하여 프로세스를 노출시키고 있다. <그림 1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리의 초기작품들과 로스앤젤레스 아방가르드

작품에서 보여지는 특징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즉 미국 다원주의의 근본적 모순과 갈등과 불협화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데에서 추상표현주의와 후기미니멀리즘이 추구하고자 했던 현실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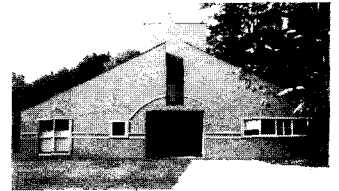
4.2. 일상성의 재해석과 발전

1960년대의 미국 미술에 있어 물성과 프로세스의 강조에 대비되는 계열인 일상성을 통한 상징을 추구하는 계열인 팝아트의 개념과 속성 역시 건축으로 그대로 전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과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팝건축(Pop Architecture)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조는 팝아트가 추구했던 개념인, '일상성'을 받아들이고, 건축문화를 상류사회계층을 위한 고급예술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를 '대중성'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승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에 있어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일상성의 해석'과 '재현의 방법'이라는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60년대 중반 벤추리(Robert Venturi)로부터 출발한 포스트모더니즘은, 팝아트가 추구했던 '일상성'을 계승하였는데,²¹⁾ 이를 대중들의 '기억'으로 해석하였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벤추리의 <바나 벤추리 하우스>를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 초기의 작품들은 이러한 '역사성'에 의존한 경향이 길게

21) 팝아트와 포스트모던 건축의 관련성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하여 직, 간접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특히, 팝아트의 출발이 되었던 영국의 독립그룹이 활동했던 시기에 벤추리의 부인이자 동료인 스캇 브라운(Denise Scott Brown)은 런던에 머물면서 그들 그룹의 '생활과 예술의 조화'라는 모토에 감명을 받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일련의 에세이들을 발표하였는데 1969년 "On Pop Art, Permissiveness and Planning"(1969)을 비롯하여 1971년 "Learning from Pop"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통하여 스캇 브라운은 팝아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도 이제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문화를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팝아티스트 위훅이 즐겨 썼던 수프 통조림(soup can)에 대한 직접적 차용 또한 찾아볼 수 있다. (Hays, K. Michael, Architecture/ Theory/ Since 1968, The MIT Press, pp.60-67 참조)

나타난다. <그림 11> 무어(Charles Moore)의 <이탈리아 광장>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대중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양식의 모티브를 혼용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은 '일상성'을 '역사성'으로 해석하고 도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2> 즉, 장소와 이용자가 위치해 있는 시간적 컨텍스트를 중시하고 이를 회복시키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그림 11> Robert Venturi <Vanna Venturi House> 1961



<그림 12> Charles Moore <Piazza d'Italia> New Orleans, 1975

이에 비하여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하여 발전된 팝 건축은 팝아트가 제시하였던 '일상성'에 대하여 더욱 미국적 개념인 '상업성'으로 해석하고 승화시킨 건축이라 할 수 있다.²²⁾ 1990년대의 글로벌 차원의 소비주의의 발전과 물질만능주의에 편승한 '디즈니 드림'에 근거하여 출발한 팝건축은 미국에서도 특히 해안의 휴양지 지역에 활발하게 나타났다. '일상성'에 대하여

대중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상업적 모티브, 특히 디즈니 캐릭터나 메인스트리트의 모티브를 사용하여 마치 꿈속 같은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²³⁾ <그림 13> 또한, 차용된 모티브는 형태의 변형 없이 그대로 축소된 형태를 유지하여 미니어처로 등장하며, 극적효과를 위하여 퍼스펙티브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 대중들의 기억에 의존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중들에게 있어, 건축양식의 의미 없는 파편의 조합에 머물렀음에 반하여, 팝건축은 하나의 주제(theme)를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체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대중적이고 더욱 상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팝건축은 그 개발과정에 있어서부터 거대 언론사나 기업의 개입이 컸기에 근본적으로 상업성을 떨 수밖에 없었으며 모티브로 차용되는 거리의 이미지들은 실제보다 더욱 상업화되어 있다.²⁴⁾ <그림 14>



<그림 13> Michael Graves <Team Disney Corporate Headquarter> California, 1986

22) 포스트모더니즘 또한 벤추리와 스캇 브라운의 <라스베가스의 교훈> 등에서 보듯이 건축에서의 상업성을 주장하고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 파급효과 즉 그 이론이 얼마만큼 가시화되었는가의 측면을 살펴볼 때,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작품들은 상업성보다는 역사성을 이용한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23) Steele, James, Architecture Today, Phaidon Press Ltd., London, 1997, p.343

그러나 '대중성'의 해석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스트모더니즘의 역사성이 상업성으로 진화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무어의 <이탈리아 광장>의 경우, 대중의 역사적 기억에 의존한다는 측면인 '역사성' 이외에



<그림 14> Jon Jerde <Horton Plaza> San Diego, 1985

도 1990년대 팝건축이 지니고 있는 건축적 속성들, 즉 미니어처의 사용이나 테마화된 광장 등이 이미 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팝건축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크게 발현되지 못했던 상업적 속성이 극대화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재현의 대상과 방법'이라는 측면을 살펴볼 때, 이 역시 포스트모더니즘과 팝건축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앞의 3장에서 팝아트가 재현된 이미지를 다시 재현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이나 팝건축 모두 상징적 의미를 지닌 객관적 모티브를 차용한다는 점에서 팝아트의 재현적 속성을 계승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는 고전 양식의 단편적 조각들을 모아 놓고 변용시켜 재현시킨 일종의 '2차적 추상'인데 반하여, 팝건축은 1차적으로 재현된 대상인 디즈니 캐릭터 등을 변용 없이 완벽하게 다시 재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²⁵⁾ 이는 마치, 회화가 구상에서 추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2차적 추상의 단계를 거치듯, 건축에서는 역으로 추상에서 구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2차적 추상 단계인 포스트모더니즘을 거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팝아트와 팝건축을 비교해 볼 때 팝아트의 경우, 대량생산 상품의 재현이라는 객관적 수단을 통하여 소비사회의 단면을 풍자하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아방가르드, 즉 '예술을 위한 예술'에 머물렀음에 반하여 팝건축은 상업적 이미지를 통하여 오히려 소비적 경향을 더욱 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건축의 자율성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하였다는 중요한 차이를 볼 수 있다.

4.3. 소결

본 장에서는 앞의 3장에서 추출한 미국적 미술의 개념과 속성이 건축으로 어떻게 전이되고 재해석되어 발현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 장에서 추출한 2원

24) Miller, R. Craig US Design 1975-2000, Prestel Verlag, New York, 2001, p.75

25) 회화에서 '구상'은 대상을 완벽하게 재현한 경우, '추상'은 대상을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차적 추상'은 '추상'과 '구상'의 중간 개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울고 있는 여자'나 '아버님의 처녀들'을 비롯한 피카소의 많은 작품들이 이에 속한다.

화된 개념, 즉 물성과 프로세스를 통한 주관적 표현의 강조 계열과, 일상성을 통한 객관적 상징 및 은유 계열은 건축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물성과 프로세스 강조 계열은 미국적 정체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서부 로스앤젤레스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났는데, 특히 계리의 초기작품이나 모포시스, 모스 등의 많은 작품에서 추상표현주의와 후기미니멀리즘의 개념과 속성이 드러났다. 건축은 순수미술과는 달리 인간이 살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지닌 것이기에 이들 계열의 미술이 추구하였던 완벽한 우연성에 의존하는 작업방식이나 뿌리기 등의 기법적 측면이 그대로 전이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즉, 이러한 양식적 전이나 기법적 전이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대신 그러한 개념과 정신이 계승되어 미국의 문화적 특징에 대한 작가의 충격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즉, 극단적 현실성을 추구하는 미국문화의 정체성을 각각 순수미술과 건축이라는 상이한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팝아트에 도입되었던 일상성 역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과 팝건축으로 전이되어 건축언어로 발현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경우, 역사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주창하였으나, 그 방법에 있어 대중들의 기억속에 자리 잡은 모티브를 차용하여 플라췌화시키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모호한 양식을 추구하였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지향했던 대중성이나 특히 상업성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팝건축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주창했던 상업성의 측면을 더욱 강화시키고 발전시켰고 할 수 있다.

물성 추구 계열의 전이양상과 비교해 볼 때, 물성 추구 계열의 양식적 특징은 그 속성상 건축으로 완벽한 전이가 어려웠던 데에 반하여 팝아트의 속성인 일상적 이미지의 차용은 오히려 팝건축에 이르러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었다. 즉, 팝아트에서 사용한 이미지들은 대량생산품 등의 '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데에 반하여 팝건축의 이미지들은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업적'인 수준으로 도달한 것이다.

순수 미술에서 추출된 개념과 속성이 건축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많은 경우, 건축 사조나 작가는 한 가지 부류에만 속하지 않고 양 쪽에 걸쳐 이중적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조라도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으며, 작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 작가의 작품세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계리의 경우, 초기에는 물성과 프로세스를 강조하며 비형상을 추구하다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이후부터는 단일 재료를 지닌 독특한 비선형 형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가인 무어의 경우는 역사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나타내는데 이러한 점을 볼 때 무어는 팝건축의 직접적 근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 고찰한 건축사조들의 개별적 속성들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순수 미술이나 건축, 그리고 나아가 미국 문화 전체가 지향하는 '현실성의 추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포스트모더니즘의 경우도 그 언어에 있어 역사적 선례를 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역사성을 도입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동시대를 나타내려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미국 건축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차적 작업으로서 당대의 순수미술과의 관계성을 전제하고, 순수미술에서 추출한 개념과 속성이 건축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고찰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우선, 현대 미국 순수미술에서 발현된 미국적 이념과 속성은 건축으로 그대로 전이되어 미국적 속성의 건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미국적 이념은 한마디로 '현실, 즉 리얼리티의 추구와 그것을 위한 환영(illusion)의 제거, 즉 비환영(disillusion)의 추구'로 축약되며, 그러한 공통된 개념은 다음의 두 가지 상반된 경향으로 나타난다. <표 1>

<표 1> 순수 미술과 건축에 나타나는 미국적 개념과 성향의 도표

	물성과 프로세스, 주관적 표현 추구	일상성을 통한 객관적 상징 추구
순수미술	추상표현주의, 후기미니멀리즘	팝아트
건축	로스앤젤레스 아방가르드	포스트모더니즘, 팝건축
	주관	객관
	표현, 아우라	상징, 재현, 복제
	비형상	형상
	재료, 물성	비물성
	프로세스	완성
	아방가르드	대중성 *팝아트의 소재는 대중적이나 메세지 전달방식은 아방가르드적
	자율성(autonomy)	역사성, 상업성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한층 발전된 상업성 (팝건축)
	추상	구상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2차적 추상
	'현재'를 나타내기 위한 리얼리티의 추구, 환영의 제거	

위와 같은 전이 과정에서 그러한 이념과 특징은 건축의 주 속성 중 하나인 '기능'이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약화되기도 하고 강화되기도 하였다. 즉, 프로세스를 추구하거나 우연성에 의존하는 속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으나, 일상성 추구 계열의

속성은 더욱 강화되어 더욱 대중화되고 상업화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추출한 위와 같은 상대적 개념들은 상대적으로만 남아 있지 않고 변증법적 발전관계를 통하여 제 3의 개념으로 승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은 미국 건축의 정체성 추출의 추후 과제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Miller, R. Craig, US Design 1975-2000, Prestel Verlag, New York, 2001
2. Gelernter, Mark, A History of American Architecture: Buildings in their Cultural and Technological Context,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England, 1999
3. Hays, K. Michael, Architecture/Theory/Since 1968, The MIT Press, Cambridge, 1998
4. Ragheb, J. Foia, Frank Gehry Architect, Guggenheim Museum Press, New York, 2001
5. Steele, James, Architecture Today, Phaidon Press Ltd., London, 1997
6. Stungo, Naomi, Frank Gehry, Carlton Book Ltd., London, 1999
7. Wenstein, Richard et al., Morphosis: Building and Projects 1989 -1992 Rizzoli, New York, 1994
8. Ruhrberg, Karl et al., Art of the 20th Century, Taschen, Cologne, 2000
9. Collins, Bradford R., "The metaphysical nose job: the remaking Warhola 1960-1968," in Art Magazine 62, Feb. 1988
10. Linton, Robert, The Story of Modern Art (20세기의 미술), 윤난지 역, 예경, 서울, 1993
11. Ali, Tariq 외 1인 저, 안찬수 외 1인 역, 1968: 희망의 시절, 분노의 날, 도서출판 삼인, 서울 2001
12. 강태희, 현대미술의 문맥 읽기, 미진사, 서울, 1995
13.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서울, 1988
14. 태혜숙, 미국문화의 이해, 도서출판 증명, 서울 1997
15. Morphosis, c3a New World Architect 시리즈 no.3, 건축과 환경, 서울, 2001
16. 진휘연, 미술과 일상성의 전치와 병합: 팝아트와 후기모더니즘의 시작 미국사연구 11집, 미국사학회, 2000
17. 진휘연, When Attitude Becomes Form, 1969년 아방가르드 미술의 집결장, 서양미술사학회 논문집 vol.19, 서양미술사학회, 2003
18. 진휘연, 추상표현주의와 후기식민주의 이론의 비판적 고찰: 모더니즘의 후기식민주의적 실천, 미술사학 vol. 12, 한국미술사교육학회, 1998

z<접수 : 2004. 12. 30>